

과목명:대학글쓰기

학과명:미디어디자인영상

이름:김현정

학번:202110

854

평: 1) 서론, 본론, 결론 구분이 없음. 2)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3) 도찰의 예외적인 경우 및 해외 사례를 언급한 부분은 좋음. 4) 서론, 본론, 결론 구분만 명확하게 나뉘준다면, 더 좋은 э세이가 될 것임. 5) 이하 내용은 발표시 코멘트와 동일함.

제목: 스즈키타츠오의 사진은 불법촬영물인가

1.당신은 누군가에게 동의없이 사진을 찍힌 경험이 있는가? 혹시 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당혹감,놀라움,혹은 기쁨 무엇이 되었던 사진을 찍는 사람의 입장과 피사체가 되어 찍히는 사람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저명한 일본의 촬영감독인 스즈키타츠오또한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없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다. ¹ 후지필름(FUJIFILM)은 새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후지필름과 계약한 유명 사진가들이 해당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긴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했다. 올라온 영상 중에는 일본에서 길거리 사진을 찍기로 유명한 사진가'스즈키 타츠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영상에는 스즈키타츠오가 길거리의 일반인에게 당사자의 허락없이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들의 당황하는 얼굴,불쾌감을 드러내는 표정 등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스즈키타츠오의 무례한 모습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감을

¹ 자투리경제김봉균SNS에디터,"[SNS 네티켓 지키기②] 도찰과 예술의 경계",자투리경제,2020년3월15일수정,2021년11월16일접속,<http://www.jaturi.kr/news/articleView.html?idxno=3772>

표했고, 결국 후지필름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스즈키타츠오를 해당 포토그래퍼 명단에서 제명했다.² 이 사건을 통해 생긴 후지필름이 사진작가 스즈키타츠오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명단에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옹호와 그와 반대로 후지필름의 대처가 옳았다는 논쟁이 해외 넷사진커뮤니티에서 일어났는데 2,304명의 익명 투표자가 투표한 가운데 후지필름이 스즈키타츠오를 해당 프로그램에 계속두어야했었다는 의견에 61%가 투표를 하였고, 후지필름이 스즈키타츠오를 제명한 것은 잘했다는 25%, 잘모르겠다는 의견에 13%라는 결과가 나왔다. 스즈키 타츠오의 사진이 과연 후지 필름에 벤(ban)당한 것이 정당한 것일까? 2.1. 그렇다면 우선 불법촬영물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³ 불법촬영물이란 상대의 허락없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성립의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법적인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한국에서 불법촬영 처벌의 기준은 대상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여부로,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자체가 범죄이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범죄로 성립되는 건 아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범죄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² “Fujifilm Removes Tatsuo Suzuki from X Photographer Program after his Controversial Street Photography Shooting Style in X100V Video”, FUJIRUMORS, 2020년 2월 8일 수정, 2022년 11월 16일 접속, <https://www.fujirumors.com/fujifilm-removes-tatsuo-suzuki-from-x-photographer-program-for-his-controversial-street-photography-shooting-style-in-x100v-video/>

³ “불법촬영”, 나무위키, 2022년 11월 18일 수정, 2022년 11월 21일 접속, <https://namu.wiki/w/불법촬영#s-2.1>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것에 그치는 수준일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불법촬영처벌 기준은 어떠할까? 미국 연방 형법 제88장(사생활) 제1801조 "영상 관음증" 으로 미국의 특별 해상 및 영해 관할 지역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의로 촬영한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하게 된다. 라는 조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사진 촬영법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집,화장실,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이 보장될 것이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나체 등 공공장소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미국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 또는 전송하는 것,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것,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이미지를 허가없이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당사자가 고소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기소된다. 다만, 예술, 과학, 연구나 교육, 또는 현대사적 사건의 보고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같은 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나라별로 처벌기준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타인의 사생활의 침해하거나 특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으로 봐야한다는것이 공통적이었다. 스키 타츠오는 해당영상에서 길거리의 행인들을 찍고,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찍지말라고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커플은 사진을 찍히는 것을 신경안쓰고, 키스를 하거나 다른 행인은 브이를 하는 등 암묵적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스키 타츠오의 사진촬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영상속 스키 타츠오도 경찰에 불려갔다 풀려난 일화를 얘기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너양스를 풍긴다. 실제로도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것은 처벌이되지않으며 민사소송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찍는 사람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2.2.스즈키타츠오는 스트리트фото그래퍼로서의 역할을 했을뿐이고, 그것은 불법촬영물이 아닌 예술이다. 찍힌 사람들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상황에서 단지 프레임에 잡히고, 사진을 찍히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 하기 어렵다. ⁴ 이것은 예전과 같이 사진이 찍히는 것이 드물거나 보급되는 범위가 작은 시대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퍼질수있는 사진 또 이미 cctv나 발달된 과학기술로 공공장소에서 감시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 생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⁵ 관련사례로 구글어스 프로그램이 있다. 구글어스프로그램은 위성사진을 이용해 만들지만 스트리트뷰의 경우에는 위성이 아닌 차위에 얹은 일반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쓴다. 스트리트뷰로 보면 모니터너머로 가고 싶은 도시나 지방을 둘러볼수있다. 그런데 스트리트뷰 카메라가 차 위에 얹혀있기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지키기위해 쳐둔 울타리나 담너머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침해로 스즈키타츠오 또한 길거리의 모습을 동의없이 찍었지만 평소 볼수없는장소가 아닌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들수있다. 그외에도 구글스트리트뷰는 여러 반발을 샀는데 미국국토안전부와 국방부는 구글이 군사시설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찍지못하도록했다. 이는 테러범이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범행장소를 미리 살펴보거나 약점을 찾아낼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나라에서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스트리트뷰 촬영에 제한을두거나 스트리트뷰 사진자체를 금지시켰다. 구글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위해 얼굴이나 차번호판을 뿌옇게 처리하기도하고 사진이 찍힌 사람이 요청하면 더 가려주기도 한다고한다. 구글처럼 인터넷이라는 광범위한 검색엔진의 특성과 사생활문제가 겹쳐지면 사람들은 민감해질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SNS에서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고, 수많은 사진이 퍼져있기때문에, 낯선이에게 사진을 찍히면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할수있다. 하지만 스즈키타츠오는 사생활의 사진이 아닌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이미 보고 있는 모습을 찍은것이고, 계획되고, 꾸며진 사진이아닌 자연스러움을 담은예술작품이라볼수있다. 2.3.후지필름이 스즈키 타츠오를 밴(ban)한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사진이나 촬영이 통제가 된다면 미디어는 극도로

⁴ ESQUIRE, "불법촬영물과는 다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단면", ESQUIRE, 2020년 4월 30일수정, 2022년 11월 21일접속,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6303>

⁵ 브렌던채뉴어리, 「클릭! 비밀은 없다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 서울:도서출판 다른, 2016, 439쪽

폐쇄적이고 사람들은 진짜의 것을 보지 못하게될것이다. ⁶ 관련사례로 난민아이의 주검사진을 들수있다. 이 사진에는 터키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살배기 시리아난민 아일란쿠르디의 주검을 클로즈업한 사진과 터키 해안경비대원이 무언가를 적으면서 쿠르디를 내려다보고있는 사진,또 그 주검을 이송하는 사진등이 있었고,언론이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에 끌어모아 유럽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더욱더 가깝고,직접적인 문제로 느낄수있게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진이 선정적이라하며 윤리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분명 사람들마다 보는시각이다르고, 선정적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진을 통해 와닿지 않았던 난민의 현실적모습을 전달한것이 더큰의미를 가진다고 볼수있다. 3.이와 같이 윤리적인부분에서 스트릿포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스즈키타츠오를 포함 다른 사진작가또한 찍히는대상 즉, 피사체의 입장이되어 사진을 찍기전후에 찍을 사진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줄수있는지 살펴보는것이 중요할 것이다. 찍히는 대상을 아무이유없이 '그냥' 혹은 '웃겨서' 라고 찍거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분명 인권윤리적인 차원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것이다. 스즈키타츠오는 스트릿포토그래퍼이며 그의 사진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는 장면, 무언가를 기다리는듯한 행인의 모습등 자연스러운 그시대의 모습을 담고있다. 이를통해 미래의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회상할수 있게하는등 그 자체의 모습으로 분명 전해주는

⁶ 이재훈,” [뉴스 AS] ‘세 살배기 난민’ 주검 사진, 모자이크 해야 했을까요?”,한겨레,2015년09월 04일수정,
2022년 12월 10일 접속,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7498.html

메시지와 힘이 있다. 그의 촬영방식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지 초상권 침해라는 명목하에 타인 즉, 사진작가가 보는 시각을 외면하고, 금지시키는것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자투리경제김봉균에디터,"[SNS 네티켓 지키기②]도촬과예술의 경계",자투리경제,2020년 3월15일수정,2021년11월16일접속,<http://www.jaturi.kr/news/articleView.html?idxno=3772>

"Fujifilm Removes Tatsuo Suzuki from X Photographer Program after his Controversial Street Photography Shooting Style in X100V Video",FUJIRUMORS,2020년 2월 8일 수정 2022년 11년 16일 접속 <https://www.fujirumors.com/fujifilm-removes-tatsuo-suzuki-from-x-photographer-program-for-his-controversial-steet-photography-shooting-style-in-x100v-video/>

"불법촬영",나무위키,2022년 11월 18일 수정,2022년 11월 21일 접속, <https://namu.wiki/w/불법촬영#s-2.1> ⁴

ESQUIRE,"불법촬영물과는 다른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단면", ESQUIRE,2020년 4월 30일수정, 2022년 11월 21일접속,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6303>

브렌던재뉴어리,「클릭! 비밀은 없다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서울:도서출판 다른,2016,439쪽
이재훈," [뉴스AS] '세살배기난민'주검사진, 모자이크 해이 했을까요?",한겨레,2015년09월 04일수정, 2022년 12월 10일 접속,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7498.html

